



“기업의

趙顯鳳씨(32. 大敎文化 인력개발부 인사과 복지담당). 그의 첫 인상은 무척 부지런하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대교문화를 방문한 날은 마침 신입사원들에 대한 건강검사가 실시되던 날이었다. 검사장소의 선정·정리부터 검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밝고 건강해 보였다.

『大敎란 “큰 가르침”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한마디로 미래의 일꾼, 인간에 대한 교육문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인간, 즉 대교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趙顯鳳씨는 힘차게 첫마디를 꺼낸다.

그의 말처럼 대교문화는 특별히 社를 정해두고 있다. 즉, “건강한 인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기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입각해서, 우선은 전 직원을 비롯한 신입사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교문화는 전국 약 40여개 지국에 천2백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매년 1회 전국 직원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년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인상 깊었던 것은 질병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복지 사회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 아닐까요?』라면서 조씨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검사를 해주시는 건협의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건협에 바라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예방의 중요성을 보다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계몽 활동에 더더욱 힘써 주셨으면 하는 것과 좀더 신속한 결과 처리입니다.』라고 애정어린 평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 『현재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산은

건강한 인간”

大教文化 인력개발부 인사과 복지담당 趙顯鳳씨

검사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 종목도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의 직원 건강관리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생활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계몽도 실시했으면 합니다.』

趙顯鳳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의 직책이 말해주듯, 그야말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2의 정성이 베어 나오는 듯 했다.

입사한지 5년째라는 趙씨는 또, 사내 등산부를 만들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취미 활동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신체의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도 함께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데도 등산은 좋은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죠.』

부여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번 휴가 때도 변함없이 고향에 가서 깨를 심고 왔다고 말하는 조씨의,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좌우명처럼, 그는 어느 곳에서나 아주 평범하면서도, 한편으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부인 남영순씨(30세)와의 사이에 3살자리 아들을 두고 있는 그는 전국 곳곳, 특히 농촌 학생을 위한 도서실을 설립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장래의 꿈이라고.

